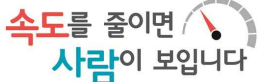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<b>배포일시</b>	2018. 10. 12(금) / 총 2매 (본문 2매)
<b>국토부</b>	BMW 리콜전담 TF	<b>담 당 자</b>	과장 이상일, 서기관 양종호, 사무관 유연형 ☎ (044) 201-3835, 4988, 3843
<b>교통안전공단</b>	자동차안전연구원	<b>담 당 자</b>	결합조사실장 남궁석완, 처장 최광호 ☎ (031) 369-0250, 0251
<b>보 도 일 시</b>		2018년 10월 13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12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BMW 화재사고 조사 중 추가리콜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병윤)은 민관합동조사단(공동단장 : 박심수·류도정)의 BMW화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리콜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.
-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.11일 BMW 118d(리콜 非대상) 차량에서도 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,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현재 진행중인 리콜(화재)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였다.
  -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, 필요시 리콜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온 바 있다.
- 이에 대해 BMW는 10.8일 추가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내부검토중이며, 국토부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할 계획이다.
  - BMW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화재위험이 낮은 차종도 포함하여 대상차량, 차량대수, 시정방법 등 제작결함 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.

\* BMW에서 부품수급 계획 등을 감안하여 리콜개시 시기도 결정할 계획임

□ 한편,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에 자료를 요구·제출자료를 분석하고, 엔진 및 실차시험, 현장조사 등을 통해 BMW가 화재원인으로 밝힌 EGR 결함이외에 화재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있다.

\* (자료요구 및 제출자료 분석) 총 12회에 걸쳐 166항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, 133개 항목제출 받고 33개 항목 진행 중

\* (엔진·실차시험, 현장조사) EGR쿨러(19개)·흡기다기관(14개)을 확보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분석 중이며 현장합동감식도 13건 진행·자료 확보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추가리콜로 BMW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조사단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BMW가 주장하는 EGR 결함 이외에 흡기다기관 문제, 소프트웨어 등 다른 원인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BMW리콜 담당TF 유연형 사무관(☎ 044-201-384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